1부 계시 —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성경론 3편 자연이 말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 4장 계시([82]·[85]–[99] 중 발췌) · 워필드 1장 계시에 관한 성경적 개념(1~2절 중심, 3~5절 일부) · 프레임 13장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 신앙고백서 1.1 · 신앙고백서 1장 1.1

> ❓ **별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 흐름 한눈에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알려 주셔야만 알려지는 분입니다. 별을 보며 느끼는 그 무엇도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보여 주신 결과입니다. 바빙크와 워필드는 이 알림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계시'와 죄인을 구원하려고 주신 '특별계시'로 나눕니다. 둘은 처음부터 한 짝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일반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주어 누구도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합니다(신앙고백서·프레임). 그러나 죄와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와 말씀으로 직접 찾아오셨고, 그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결론은 별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별을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 표시 안내: 성경의 근거 표에서 ★는 이 편의 책 둘 이상이 같은 구절을 든 경우입니다. 이 교리를 받치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 절별 정리

📜 1. 하나님은 스스로 알리셔야 알려진다 (바빙크 4장 [82] · 워필드 1장 1절)

바빙크는 종교학의 관찰에서 출발합니다. 베다든 코란이든, 모든 종교는 '신이 자신을 드러냈다'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라면 사람의 평범한 연구로는 그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숨어 계신 곳에서 나와 스스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또 모든 종교는 결국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해부학이나 심리학이 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습니다. 워필드는 같은 지점을 성경 쪽에서 말합니다. 성경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먼저 끼어드신 '계시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내버려 두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셔서가 아니라 죄로 마음이 어두워진 탓이라고 워필드는 말합니다.

1. 모든 종교는 '계시'를 주장한다
2. 하나님은 스스로 알리셔야 알려진다
3. 구원의 질문은 과학 너머에 있다
4. 성경의 종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종교
5. 하나님을 모르는 건 사람의 죄 탓

> **요한복음 4:22**
>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 통로(워필드)
>
>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 **에베소서 2:12**
> 특별계시 밖의 이방인은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워필드)
>
>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 **신명기 4:7**
>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하신다. 계시 종교의 특징(워필드)
>
>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계시와 종교는 함께 서고 함께 넘어진다” — 바빙크

📜 2. '자연·초자연'보다 '일반·특별' (바빙크 4장 [85]–[86] · 워필드 1장 2절)

오랫동안 교회는 계시를 '자연적 계시'와 '초자연적 계시'로 나눠 불렀습니다. 바빙크는 이 구분이 성경에 없다고 말합니다. 창조에서도 성경에서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기원으로 보면 창조계시도 초자연적입니다. 창조는 첫 계시이자 뒤따르는 모든 계시의 기초입니다. 타락 전에도 하나님은 “먹지 말라”처럼 자연에서 추론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모든 계시는 '매개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언가를 거쳐 자신을 알리십니다.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한 하나님을 그대로 담을 수 없기 때문이며, 그래서 계시는 늘 하나님이 몸을 낮추시는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빙크는 '일반계시/특별계시'라는 이름이 낫다고 봅니다. 워필드도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두 계시는 처음부터 계획된 한 짝이고, 특별계시는 타락을 수습하려고 나중에 끼워 넣은 처방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생긴 변화는 초자연적 계시가 일부에게만 주어지게 된 것, 곧 그 '특별성'입니다.

1. 성경엔 자연/초자연 구분이 없다(바빙크)
2. 창조가 첫 계시이자 모든 계시의 기초
3. 모든 계시는 수단을 거친다(매개적)
4. 두 계시는 처음부터 한 짝(워필드)
5. 죄가 낳은 건 계시의 '특별성'

> **★ 창세기 2:16**
> 에덴의 명령은 자연에서 추론할 수 없는 말씀 계시다(바빙크·워필드가 같은 논지로 인용)

> **요한복음 5:17**
>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모든 계시는 기원에서 초자연적이다(바빙크)
>
>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다

시편 19:1-7

하늘의 영광과 여호와의 율법이 한 시편에 나란히 있다. 두 계시가 한 짝이다(워필드)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5]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

"이 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특별계시의 초자연성이 아니라 초자연적 계시의 특별성이다." — 워필드

📜 3. 자연이 말하는 것 —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 오는 통로 (바빙크 4장 [86] · 프레임 13장 1 · 신앙고백서 1.1)

그렇다면 자연은 무엇을 말할까요? 신앙고백서는 먼저 '자연의 빛'을 인정합니다. 양심과 이성처럼 사람 안에 심긴 하나님 인식입니다. 여기에 창조와 섭리의 일이 더해져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냅니다. 바빙크는 이 드러남의 자리를 넓게 봅니다. 창조 안에서는 능력과 신성이, 해와 비 같은 복 안에서는 선하심이, 심판 안에서는 진노가 드러납니다. 민족의 역사와 개인의 양심도 그 자리입니다. 프레임은 같은 내용을 '통로'라는 말로 정리합니다. 모든 사물과 사건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자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은 창조 '위에' 계시면서 창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연에는 들리는 목소리가 없습니다(시편 19:3). 그래도 프레임은 자연계시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임재를 틀림없이 전하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1. 자연의 빛: 양심과 이성(고백서)

4. 자연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통로(프레임)

5. 목소리는 없어도 분명히 말한다

> **★ 로마서 1:20**
>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고백서·바빙크·워필드·프레임 네 책 모두)

> **★ 시편 19:1**
>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백서·바빙크·워필드·프레임 네 책 모두)

> **시편 19:3**
> 언어도 소리도 없이 말한다. 자연계시에는 목소리가 없다(프레임)
>
>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 **★ 사도행전 14:17**
> 비와 결실기로 자기를 증언하셨다(바빙크·워필드·프레임)

> **★ 마태복음 5:45**
>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주신다(바빙크·프레임)

> **★ 로마서 2:14-15**
> 마음에 새겨진 율법, 곧 양심을 통한 계시(고백서·바빙크·워필드)

> **사도행전 17:26-27**
>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고 더듬어 찾게 하셨다(17:26 바빙크, 17:27 워필드)
>
> 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 **신명기 32:8**
>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는 역사 속 계시(바빙크)
>
>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말씀의 매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프레임

📜 4. 핑계할 수 없다 — 일반계시의 역할 (프레임 13장 1 · 신앙고백서 1.1 · 워필드 1장 1~2절 · 바빙크 4장 [94])

신앙고백서는 자연의 드러냄이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다고 고백합니다. 프레임은 로마서 1장으로 이를 풀어 세 가지를 짚습니다. 첫째, 이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인격적 지식입니다. 둘째, 이 지식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라는 도덕적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셋째, 사람은 이 진리를 막고 거짓으로 바꿉니다. 종교를 버리지는 않고 섬기는 대상을 우상으로 바꾸며, 그 결과 온갖 불의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자연계시는 하나님의 친절을 보이면서 동시에 진노의 계시가 됩니다. 워필드는 일반계시만 있는 곳의 결과는 '핑계할 수 없음'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바빙크도 타락한 사람은 계시를 일부만 보고 그마저 고의로 억누른다고 하며, 바르게 보게 하는 은혜의 조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입니다.

1.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다(고백서)
2.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프레임)
3.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요구가 있다
4. 사람은 진리를 막고 우상으로 바꾼다
5. 친절의 계시가 진노의 계시가 된다

> ★ **로마서 1:18**
> 진리를 막는 불의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바빙크·워필드·프레임)

> ★ **로마서 1:19-20**
>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셨으니 핑계하지 못한다(고백서·바빙크·프레임. 1:20은 워필드도)

로마서 1:32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면서도 행한다. 핑계할 수 없음의 마지막 근거(프레임)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낸다.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드러낸다." — 신앙고백서 1.1

📜 5. 그러나 구원의 길은 말하지 않는다 — 일반계시의 한계 (바빙크 4장 [87] · 워필드 1장 2절 · 신앙고백서 1.1 · 프레임 13장 1)

일반계시가 구원에 모자란다는 데는 아우구스티누스부터 로마 교회와 개신교까지 이견이 없었다고 바빙크는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으로는, 철학은 목적지는 보아도 거기로 가는 길은 모릅니다. 바빙크가 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반계시는 죄도, 하나님의 진노도, 은혜도 알려 주지 못합니다. 거기서 얻는 지식은 불확실하고 오류와 섞여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에 닿지도 못합니다. 이신론이 말한 '순수한 자연종교'는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워필드는 베이컨의 말을 빌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그분의 뜻은 말하지 않는다고 정리합니다. 일반계시는 '사람으로서의 사람'에게, 특별계시는 '죄인으로서의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일반계시가 없으면 특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기초를 잃습니다. 프레임은 로마서 1장 어디에도 죄 용서의 길이 없으며, 구원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고 말합니다.

1. 일반계시는 죄·진노·은혜를 모른다
2. 순수한 자연종교는 존재한 적 없다
3. 하늘은 영광을 말하나 뜻은 말하지 않는다
4. 사람에게 일반계시, 죄인에게 특별계시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연계시의 한계(고백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시편 19:7

영혼을 살리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이다. 19:1과 짝을 이룬다(워필드 19:1-7)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로마서 10:14-17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프레임)

14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6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한복음 17:3

하나님과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워필드가 장절 없이 인용)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도행전 17:30

하나님이 이방의 “알지 못하던 시대”를 간과하셨다(바빙크)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대한 지식을 주지 못한다.” — 신앙고백서 1.1

📜 6. 별을 보며 느끼는 그 마음 — 종교의 씨와 일반은총 (바빙크 4장 [88] · 워필드 1장 2절 · 프레임 13장 1)

바빙크는 일반계시가 모든 이방 종교의 토대라고 말합니다. 종교가 원시 상태에서 고등종교로 '진화'했다는 설명은 종교가 퇴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칩니다. 바빙크가 보기에 하나님 개념은 처음부터 모든 종교의 뿌리였습니다. 성경은 이방 종교를 우상숭배와 헛것, 흑암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바빙크는 그 안에 진리의 조각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를 그저 사기꾼으로 보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지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개혁파는 이것을 '일반은총'으로 설명합니다. 이 교리로 “자연신학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거부하면서도 이방 세계의 참·선·미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칼뱅이 말한 '종교의 씨'와 '신성에 대한 감각'이 바로 별을 보며 느끼는 그 마음입니다. 워필드도 옛 계시의 흔적은 인정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이방 세계 어디에도 새어 나가지 않았다고 선을 긋습니다. 프레임의 말처럼 사람은 종교를 버리지 않고 대상을 바꿀 뿐입니다.

1. 일반계시는 모든 종교의 뿌리다
2. 이방 종교에도 진리 조각이 있다
3. 그러나 일그러진 모방이다
4. 일반은총: 인정하되 구원은 아니다
5. '하나님 느낌'은 진짜, 다만 죄로 흐려짐

> **요한복음 1:9**
> 각 사람을 비추는 참 빛. 이방인 가운데에도 로고스의 조명이 있다(바빙크)
>
>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 **사도행전 17:22-30**

[22]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

사도행전 14:15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바빙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 로마서 1:23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다. 종교는 남고 대상이 바뀐다(프레임 1:23, 바빙크 1:21-23)

📜 7. 행위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 특별계시 (바빙크 4장 [90]–[93] · 프레임 13장 2 · 워필드 1장 3절)

바빙크는 모든 종교에 세 가지 갈망이 있다고 봅니다. 가까이 계신 신, 뜻을 알려 주는 신, 도와주는 신을 향한 갈망입니다. 성경은 이 갈망에 신현(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심), 예언, 기적으로 답합니다. 형식은 다른 종교와 닮았어도 내용은 다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은 이것을 '구속사'로 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행하신 전능한 일들이 출애굽에서 십자가와 부활까지 이어지고, 사람들은 그 일들로 “여호와가 주님”임을 압니다.

단서를 붙입니다. 설명 없는 행위만으로는 지식이 생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행위에 말씀을 더해 그 뜻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행위에 붙은 해설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구원 행위입니다.

1. 세 갈망에 신현·예언·기적으로 답하심
2. 형식은 닮아도 내용은 메시아 신앙
3. 구속사가 죄 용서의 길을 연다(프레임)
4. 행위만으론 부족, 말씀이 뜻을 푼다
5. 계시 자체가 구원 행위다(워필드)

> **출애굽기 14:18**
> 홍해 사건으로 애굽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프레임)
>
>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 **출애굽기 20:2**
> 구원 선언 뒤에 계명이 온다(프레임)
>
>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 **★ 민수기 12:6**
>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신다. 예언의 방식(바빙크·워필드)

> **★ 요한복음 2:11**
> 가나의 표적이 영광을 나타낸다(바빙크·프레임)

> **마태복음 11:3-5**
> 예수님의 기적은 메시아 시대가 왔다는 증거다(바빙크)
>
> 3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 기다리오리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 요한에게 알리되 5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고린도전서 1:18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프레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계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행위이다." — 워필드

📜 8.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글로 남다 (바빙크 4장 [94]–[97] · 워필드 1장 4절 · 신앙고백서 1.1)

바빙크에게 계시는 조각난 정보가 아니라 창조에서 완성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일반계시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이 두드러지고, 특별계시에서는 성부·성자·성령의 구별이 분명해집니다. 이 계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시며 예언의 내용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면서 계시도 완성되었고, 성령은 새것을 더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져다 알리십니다. 워필드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계시를 '전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계시가 주어지는 분입니다. 성령이 그 사실을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셨을 때 계시는 완성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쳤습니다. 신앙고백서 1.1도 하나님이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계시하셨고, 그 전체를 글로 남기셨으며, 이전 방식은 이제 그쳤다고 고백합니다. 왜 글로 남기셨는지는 다음 편에서 다룹니다.

1. 계시는 창조에서 완성까지 한 이야기
2. 특별계시에서 삼위 하나님이 드러난다
3. 그리스도 = 계시의 절정이자 내용
4. 성령은 새것을 더하지 않으신다
5. 하나님이 그 계시를 글로 남기셨다

★ 히브리서 1:1-2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신현의 절정(바빙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요한복음 16:14

성령은 그리스도의 것을 가져다 알리신다(바빙크 16:14, 워필드 16:14-15 암시)

마태복음 16:17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계시를 받는 데에도 성령의 내적 사역이 필요하다(바빙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께서는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다." — 신앙고백서 1.1

📜 9. 성경의 안경을 쓰고 다시 별을 보다 (바빙크 4장 [89]·[98]–[99] · 프레임 13장 1)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별은 쓸모없어질까요? 바빙크는 반대로 말합니다. 성경 스스로 창조 속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예술적 재능과 지도력도 하나님의 영에게서 온다고 말합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쓴 사람은 자연과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로 알게 된 바로 그 하나님의 자취를 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버지의 집처럼 느껴집니다. 일반계시는 믿지 않는 친구와 만나는 공통 기반이기도 합니다. 일반계시가 갈망을 살려 두고, 복음이 그 갈망을 채웁니다. 바빙크는 로마 교회의 자연·은혜 이원론도 물리칩니다. 은혜가 맞서는 상대는 자연이 아니라 죄입니다. 프레임도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자연을 자기 기준대로 해석할 자리는

언약의 표이고, 구속을 기다리며 신음하는 피조물입니다. 성경을 일상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1. 성경의 안경으로 본 세상 = 아버지의 집
2. 일반계시는 전도의 공통 기반
3. 은혜는 자연이 아니라 죄와 싸운다
4. 자율적 해석의 자리는 없다(프레임)
5. 자연도 구속을 기다린다

> **★ 시편 104편**
> 창조 세계 전체에서 하나님을 보고 찬양한다(바빙크 104:29-30, 프레임 104편)

> **★ 창세기 9장(무지개)**
> 자연의 표징에 말씀이 함께 온다(바빙크 9:12-17, 프레임 9:16 언약의 표, 워필드 9:1-17 홍수 뒤 계시)

> **로마서 8:19-23**
>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프레임)
>
> 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 **출애굽기 31:2-5**
> 브살렐의 예술 재능도 하나님의 영에게서 온다(바빙크)
>
> 2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 3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 4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5 보석을 깎아 물리며

요한복음 17:15

세상에서 데려가지 말고 악에서 지켜 달라는 기도. 도피가 아니다(바빙크)

>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연은 은혜를 천거하고, 은혜는 자연을 교정한다.” — 바빙크

🗣️ 다섯 목소리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신앙고백서 1.1	자연의 빛과 창조·섭리는 핑계 못 할 만큼 하나님을 보여 주지만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주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방식으로 직접 계시하셨다.	역할(핑계 못 함)과 한계(구원 지식 없음)를 한 문장에 담은 공적 선언	왜 부족한지, 자연계시를 신자가 어떻게 누리는지, 이방 종교 문제 (바빙크·프레임이 메운다)
바빙크	일반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참된 계시이자 모든 종교의 뿌리다. 그러나 죄·진노·은혜를 모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특별계시가 필요하다.	모든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수단을 거쳐 온다, 일반은총, 은혜는 죄와 싸운다	성경의 계시 용어 연구(워필드), 로마서 1장의 책임 구조 해설(프레임)
워필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은 말해도 그분의 뜻은 말하지 않는다. 일반계시는 사람에게, 특별계시는 죄인에게 주신 것이며 둘은 처음부터 한 짝이다.	특별계시는 사후 처방이 아니다, 행위에는 말씀의 설명이 따른다, 계시 자체가 구원 행위다	신자가 일반계시를 문화·학문 속에서 누리는 문제(바빙크·프레임)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프레임	자연은 하나님 말씀이 실려 오는 통로로, 분명하고 권위가 있어 핑계를 막는다. 그러나 용서의 길은 구속사와 복음 설교로만 온다.	자연 자체는 말씀이 아니다, 중립적·자율적 해석은 없다, 성경의 안경	종교사와 이방 종교 속 진리 조각 (바빙크)
오웬	이 편의 재료에 없음. 이 편의 질문은 바빙크·워필드·신앙고백서가 메운다.	(오웬은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임을 드러내는 '자증'을 다루는 책으로, 뒤 편에 등장한다)	—

- 네 책은 같은 뼈대를 공유합니다. 자연은 분명히 말한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구원은 말하지 않는다. 고백서가 이 뼈대를 한 문장으로 선언하고, 나머지 세 책이 그 근거를 풉니다.
- 바빙크는 '넓이'를 줍니다. 종교사, 이방 종교, 일반은총, 문화까지 다룹니다. 워필드는 '정밀함'을 줍니다. “초자연적 계시의 특별성”이라는 공식과 성경 단어 연구가 그것입니다. 프레임은 '해석의 문제'를 줍니다. 자연은 통로이고, 성경의 안경 없이 자율적으로 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초자연'이라는 말은 두 사람이 다르게 씁니다. 바빙크는 기원을 따져 창조계시도 초자연적이라고 하고, 워필드는 타락 뒤 자연계시가 초자연적 성격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둘 다 “모든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와 “죄 때문에 구원 계시가 특별해졌다”에서 일치합니다.
- 고백서의 “이전 방식들은 그쳤다”와 바빙크가 은사 지속 문제를 '부차적'이라 한 것은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 내용이 완성되었다는 데에는 일치합니다.

📖 용어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리고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열어 보여 주시는 일.

일반계시
창조와 섭리, 역사와 양심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계시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이지만 구원의 길은 알려 주지 않는다.

특별계시
신현·예언·기적과 구속의 사건을 거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경에 기록된, 죄인을 구원하는 계시.

자연의 빛
양심과 이성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안에 심어 두신 기본적인 하나님 인식과 도덕 감각.

섭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일을 계속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것.

일반은총
구원과 별개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베푸시는 선한 은혜.

신현
불, 구름, 여호와의 사자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는 일.

매체(통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려 오는 길. 프레임은 자연과 역사의 사건도 그 통로로 본다.

자율
하나님의 계시 없이 내 이성을 최종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려는 태도.

영감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하나님은 스스로 알려 주셔야만 알려지는 분이고, 실제로 자연과 양심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셨다.
- 그 드러남은 분명해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지만, 죄와 용서와 은혜는 말하지 않는다.
-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와 말씀으로 직접 찾아오셨고, 그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글로 남았다.
- 별이 무의미해진 것이 아니다. 성경의 안경을 쓸 때 별은 아버지의 집을 비추는 빛이 된다.

📚 이 편의 책별 정리 노트

- 신앙고백서 · 1장 성경에 관하여 (10절, 1647 영문)
- 바빙크 · 4장 계시
- 워필드 · 제1장 계시에 관한 성경적 개념
- 프레임 ·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